 보도자료 2013. 10. 7. (월)	자료문의	남궁윤영 연구원 (02-3156-7210)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3. 10. 7. (월)
	※ 총 6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체감정책단

청년 일자리 문제와 창업에 대해 말한다

‘청년여성인력활용으로 열어나가는 창조경제 현안조사와 생활체감정책단 간담회 결과 공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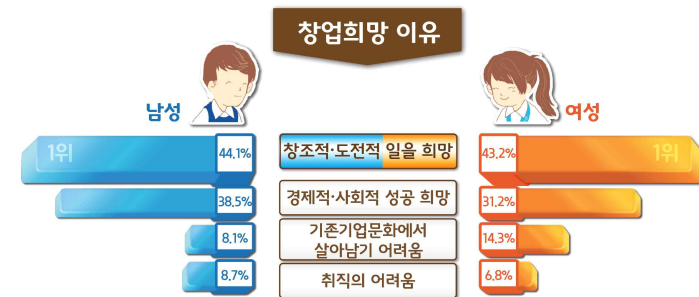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이 전국 만 15세~34세 이하의 남녀 1,115명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실시한 “청년 여성 인력활용으로 열어나가는 창조경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과정에서 여성은 성별 및 연령차별을, 남성은 학력 및 지역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로 제기된 청년창업(협동조합 포함)에 대해서 약 40%(남성 38%, 여성 38.5%)에 달하는 남녀가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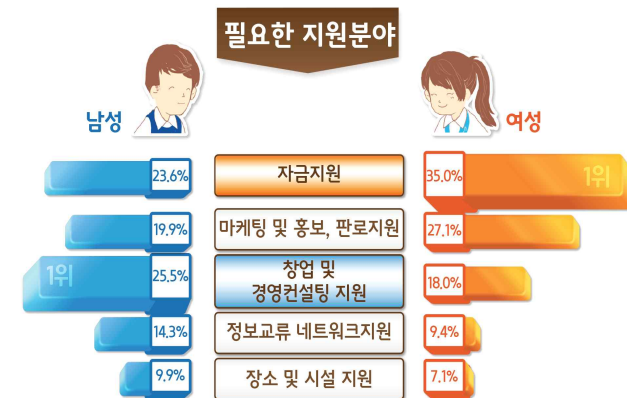


- 창업희망 이유는 남녀 모두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남성 44.1%, 여성 43.2%)’,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공을

하고 싶어서(남성 38.5%, 여성 3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기존 기업 조직 및 문화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서(남성 8.1%, 여성 14.3%)’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창업을 원치 않는 이유로는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전체 51.0%, 남성 53.6%, 여성 49.4%)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창업 준비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은 자금지원(35.0%), 남성은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25.5%)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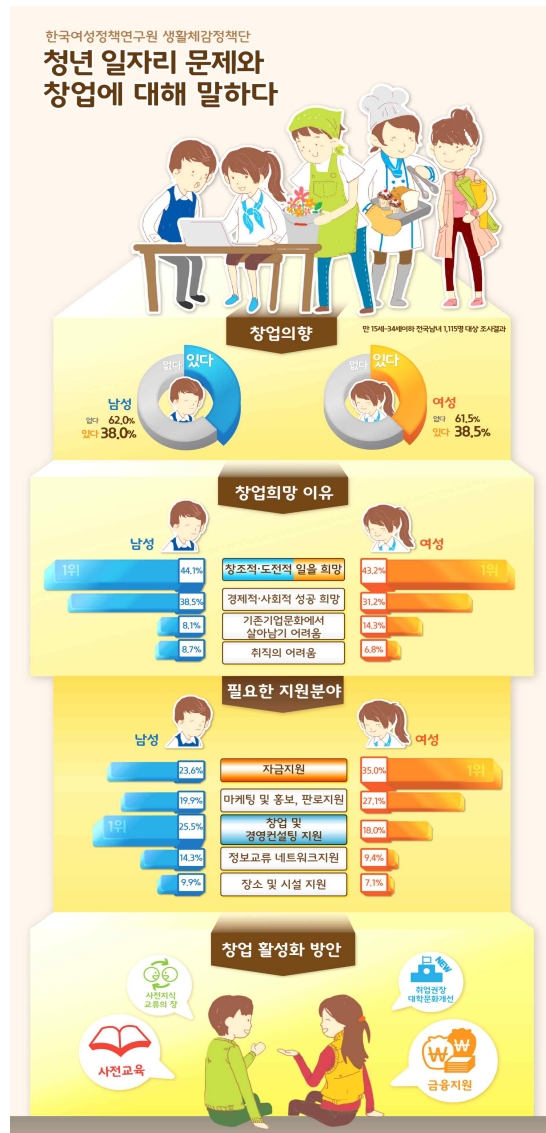
창조경제시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창업지원 확대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체감정책단은 현안조사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와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쌍방향 소통의 온라인 주제 토론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생활체감정책단원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고학력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양질의 일자리 규모’, ‘시대에 맞지 않은 교육정보 시스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환경 격차’ 등을 지적하였으며,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 지원 강화’, ‘대입위주의 교육정책 개선’, ‘창업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구직자의 의식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일자리 창출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창업(협동조합 포함)’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금융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멘토링 제도’나 ‘분야별 전문가 지원제도’ 등과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전 지식 교류의 장이 필요하며, 취업을 권장하는 대학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 또한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 중 창업지원금을 산업 분야별로 달리 지원하거나, 무담보 대출 또는 융자 등과 같이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이번 토론의 주체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생활체감 정책단’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http://cafe.naver.com/vivakwdi>)로 2010년 6월 11일 출범하였다.
 - 현재 생활체감정책단에는 온라인 패넬 1천명과 커뮤니티 회원 66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를 토론했고, 간담회, 설문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생활체감정책단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본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생활체감정책단
단원들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관련 인포그래픽
2. 현안조사 결과자료

붙임 1 관련 인포그래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